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육아용품 편

풍요로운 가을을 위한 준비

가을이다! 강력한 바람을 몰고 왔던 태풍 '곶파스'와 올 추석에 갑자기 닥친 수해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우리 곁에 슬며시 스며들고 있었다. 쌀 재고량이 최대 160만 톤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풍년을 감사하는 축제들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10월을 장식하고 있다. 경작지가 국토의 약 1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넉넉한 수확물들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웠던 60~70년대부터 꾸준히 농업기술 연구에 이바지한 아버지 세대들의 노력 때문이었으리라. 충만한 가을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찬 봄, 여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1 - 이번 2010년 베이비페어에는 1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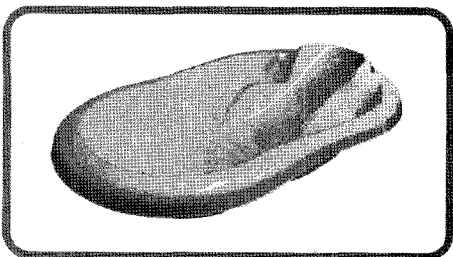


그림2 - 종래에는 유아용품을 만들지 않았던 (주)세계산업의 히트 상품 '뽕뽕양 쿠션욕조'

국가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집필한 명저 '국부론'에서 "미국의 부와 인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아마 100년 안에 미국 세금이 영국 세금을 앞지러지도 모른다."고 예언했으며, 그의 말대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국은 영국을 앞질렀다. 나라를 세운 지 겨우 100년 남짓 만에 대영제국을 앞지러 만큼 나라의 힘을 키운 원동력은 바로 인구였으며, 미국은 이후로도 풍요로운 '국가적 가을'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42조원을 투입함에도 1.15명으로 곤두박질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있으면 '과연 30년 후 우리나라의 가을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반면, 지난 8월 22일까지 열렸던 제18회 국제임신출산 육아용품전시회(베이비페어)에는 약 1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린 현상을 보면, '아이 키우기'에 대한 열정은 세계 어느나라 부모들보다 월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태교 용품, 임신부 용품, 출산 용품, 영유아용 식품, 화장품, 완구 및 교육교재, 유모차 및 카시트, 베이비



그림3 - 스토케의 실물사진



그림4 - 등록디자인 제30-0371324호로 보호받고 있는 스토케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구, 공기청정기와 연수기 등 35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4개월짜리 아이를 두게 된 필자도 총 850개 부스가 들어선 이번 전시회를 직접 참관하면서, 낮아지는 출산율에 반비례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아용품시장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전까지 유아용품 사업을 하지 않았던 회사의 진출이 상당히 늘어났다. 과거 신발 밑창을 개발하던 에르코스통상은 신발 밑창에 쓰이는 합성수지 성형 기술을 적용, 인체공학 수유시트 '맘비 베이비 케어시트'를 출시했고, 유명 자동차들의 카시트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트 전문 기업 '레카로'도 프리미엄 유모차 '베이비젠'을 내놨다. 육조전문기업 세계산업은 '뽀뽀양 유아용 쿠션 육조'를 선보였다.

이제는 '육아의 양'보다는 '육아의 질'을 따지는 2,30대 부모들이 우리사회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키우는 세대가 곧 우리나라의 '가을'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퀄리티 있는 육아를 원하는 2,30대 부모들을 상대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아용품'에 숨어있는 지식재산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유모차의 제왕 - 스토케

'가장 비싼 유모차'로 알려진 스토케(STOKKE), 노르웨이의 프리미엄 유아용품 기업인 스토케는 최근 국내유명호텔에서 유모차 신제품 출시기념식을 할 정도로 국내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옵션 용품을 제외한 기본품의 가격만 2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유모차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내런칭 이후 연간 5,0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스토케의 국내시장 성공에 힘입어 세계각국의 명품유모차들의 국내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주요소비자인 2,30대 주부들의 유모차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케의 유모차는 그 디자인적인 특징이 종래의 유모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며, 이러한 디자인적 장점을 '당신의 아이의 눈높이를 높이세요'라는 강력한 카피라이트로 어필함으로써 시장에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케의 디자인은 한국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2005년 9월 30일에 국내출원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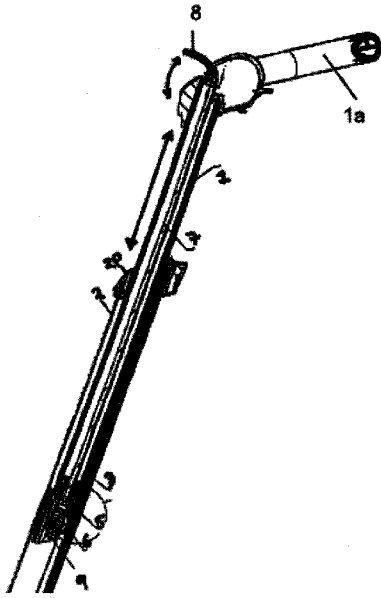


그림5 - 국제출원 PCT/NO2004/000189으로 보호받고 있는 트롤리의 삼통식 스템을 위한 잠금장치

스토케 디자인출원은 2005년 4월 1일에 노르웨이에서 출원된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출원되었고, 2006년 5월 23일에 국내 디자인권 제30-0371324호로 등록되었다.

한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모차의 특성상, 여러 가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스토케사는 이를 '트롤리의 삼통식 스템을 위한 잠금 장치(국제출원 PCT/NO2004/000189)' 및 '어린이용 좌석의 높이 조절 장치 및 삼통식으로 조절 가능한 발 지지부(국제출원 PCT/NO2004/000188)'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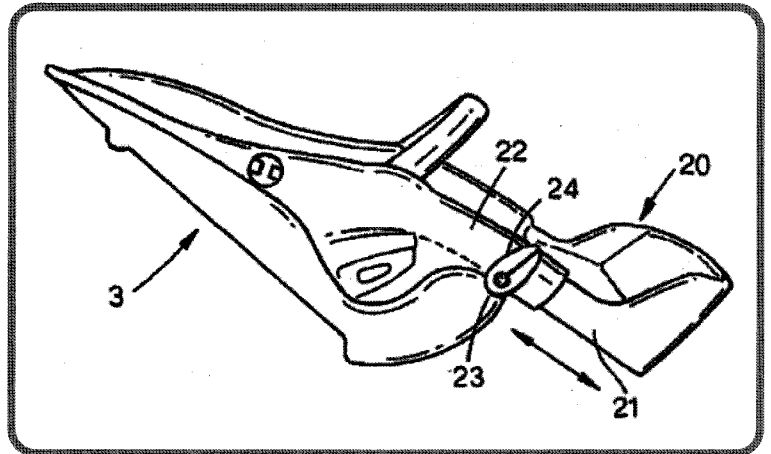


그림6 - 국제출원 PCT/NO2004/000188으로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용 좌석의 높이 조절 장치 및 삼통식으로 조절 가능한 발 지지부

이외에도, 스토케는 '유모차' 하나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개발로 다량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비싼 제품'과 매출로 환급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디자인과 정교한 기술이 합체된 스토케의 유모차야말로 '명품 특허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일무이한 '스토케'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겠다.

엄마들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범보의자'

2001년에 개발되어 전 세계 80개국 아기엄마들의 손을 아기로부터 해방시켜준 의자. 육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기가 24시간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가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기는 엄마에 대한 집착이 심하며, 이로 인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친정부모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범보의자'라는 발명품은 스스로 앉지 못하는 3~6개월짜리 아기를 스스로 앉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에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까지 주부들이 가사일을



그림7 - 범보의자는 많은 아기엄마들의 '시간'을 확보해 준 착한 발명품이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준 것이다.

이 의자는 몸을 가누기 시작하는 3개월부터 두 돌까지 사용 가능한 크기(폭 38.5 x 높이 24cm)로 등부터 겨드랑이까지 고정시켜 주며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구조로 제작돼 엄마가 안심하고 가사일에 집중할 수 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무독성 소재로 제작돼 가볍고 운반 및 휴대가 간편하다. 또한 의자 표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엠보싱 처리를 가해 여름철 연약한 아기피부가 땀으로 짓무르는 것을 예방한다.

범보의자의 발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보이텐다치 요한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범보의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유사품이 엄청나게 등장했다.) 하지만, 범보의자의 명성과 퀄리티에 힘입어 개량발명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라는 명칭으로 국제출원 제PCT/IB2008/050166호로 출원되어 국내에 진입하였다. 발명자는 국제출원에서 ‘본 발명은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10)에 관한 것으로, 개구(18), 시트 위에 얹은 유아의 몸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 형성부(14) 및 시트의 개구가 변기의 볼로 통할 수 있게 변기 시트 위에 놓일 수 있는 기부(16)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는 시트와 지지체 형성부와 기부가 일체형 구조를 갖는 것과 탄성 재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지체 형성부의 적어도 일부분이 유아의 체중의 영향으로 시트 위에 얹은 유아를 향하여 굽혀지게 한다.’고 기재하여, 발명의 특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1에서는 [하나의 개구가 마련된 시트와, 상기 시트 위에 얹은 유아의 몸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 형성부와, 상기 시트의 개구가 변기의 볼로 통할 수 있게 변기의 시트 위에 놓이는 기부를 포함하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에 있어서, 상기 시트와 지지체 형성부와 기부는 일체형 구조이고 탄성 재료로 제조되며, 상기 탄성 재료는 지지체 형성부의 적어도 일부분이 유아의 체중의 영향으로 시트 위에 얹은 유아 쪽을 향하여 굽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를 기재하여, 상당히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항1을 한정하는 종속항을 6개 추가하여, 세부적인 권리범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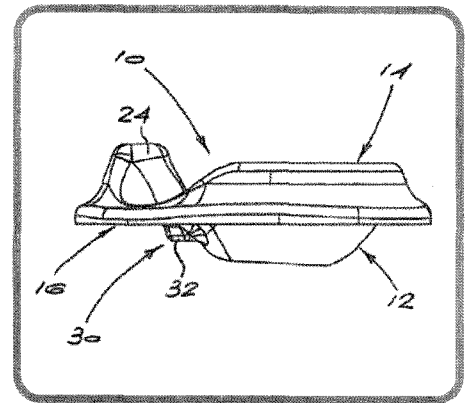


그림8- 국제출원 제PCT/IB2008/050166호로 보호되고 있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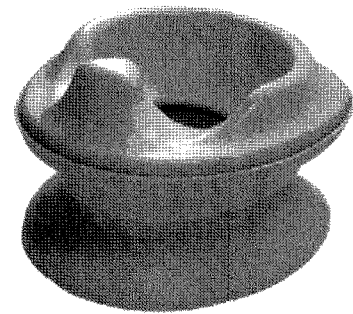


그림9-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의 실제 사진

대세는 모유수유, 하지만 쉽지 않다 - 메델라 착유기

모유를 먹이면 아기 머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유아 전염병 예방 효과가 우유보다 6배나 높고, 아기 돌연사의 위험이 적어지며, 엄마젖을 먹인 어머니는 자궁암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진다. 이외에도 모유를 먹여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모유수유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착유기’라는 발명품이 탄생하였으며, 많은 산모들과 아기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의 메델라사는 1961년 설립 이래 많은 착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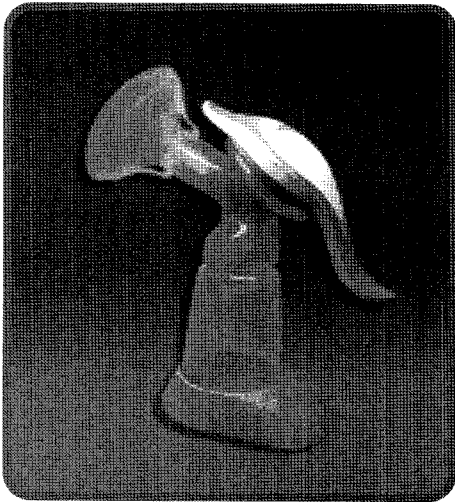


그림10 - 메델라의 수동식 착유기는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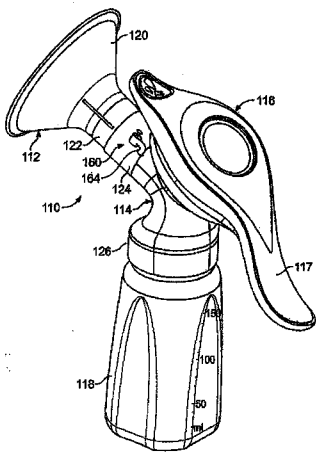


그림11 -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의 문헌에 기재된 메델라유축기 도면

제품들을 연구개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유착유에 있어서 독보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회사에서 개발한 착유기 제품들은 여성들의 유방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설계된 것으로, 많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펌프' 라고 할 수 있다.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로 보호되고 있는 동기식 다이아프램 브레스트 펌프 펌핑 주기 압력 제어 시스템은 메델라사의 '하모니 유축기' 라는 이름으로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유축기의 특징은 무전동방식의 유축기로서, 펌핑 주기 동안에 브레스트 실드 챔버 내의 유방에 실제로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고, 최소 진공을 유지하는 주기를 측정하여 모유가 추출될 수 있는 최적의 압력을 유지해준다는 것에 있다.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의 청구항1에는 [모유를 추출하기 위한 개선된 브레스트 펌프로서: 브레스트 펌핑 세션에서 적어도 어떤 반복된 주기의 진행 동안에 그 내부에서 적어도 최소 부압을 유지하도록 브레스트 실드 챔버와 연결된 메커니즘을 구비한 브레스트 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브레스트 펌프]가 기재되어 있으며, 메델라사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종속항 및 기타 독립항이 무려 74개나 추가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마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수록 출산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면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제품들 중에는 직접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제품화하여 크게 성공한 제품들도 있고, 전문적인 피부질환치료제에 관한 특허물질도 있으며, 단순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제품들도 다수 있다. '발명품'에서 '발'자만 떼면 명품이 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조차 감탄한 아이에 대한 대한민국 부모의 열정을 발명품으로 구체화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아용품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엄 정 한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엔트리
 서울대, 공주대, 경상대, 강원대
 지식재산권 특강
 저서: 특허법 에센스